

원작소설로 만든 영화 작품 감상해볼까

광주 영화 애호가들 모이는
'20세기소설영화독본' 모임
1월17~6월19일 격주 수요일
2024 상반기 프로그램 진행



영화 '컨택트'의 한 장면.



영화 '베니스의 상인'의 한 장면.

조대영 영화평론가 제공

16번째 시즌을 맞는 광주 대표 인문학 시민 모임인 '20세기소설영화독본'이 1월17일 첫모임을 시작으로 2024년 상반기 일정이 시작된다. 오는 6월19일까지 격주 수요일마다 광주극장 별관인 영화의 집에서 진행된다.

'20세기소설영화독본'은 비디오 테이프 컬렉터이자 광주 대표 영화 평론가인 조대영씨가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근무 당시 만든 시민 모임이다. 영화를 좋아하는 시민들이 모여 소설 원작이 있는 영화 작품을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2009년 1월부터 현재까지 360회 진행됐으며 읽고 본 소설과 영화만도 각각 360편에 이른다.

1월17일 예정된 첫 모임은 '웅따 해'답게 신화적인 작품으로 포문을 연다.

가브리엘 마르케스가 쓴 '백년 동안의 고독'과 영화로 만든 테라야마 수지 감독의 '안녕 하코부네'다.

소설 '백년 동안의 고독'은 1982년 노벨문학상 수상작으로 중남미 문학의 특징인 '마술적 리얼리즘'의 원조격인 소설로 평가 받는다. 신기루처럼 사라져간 마콘도 마을을 무대로 한 집안의 백년에 걸친 역사를 환상적으로 직조해냈다. 원작을 일본의 상황에 맞게 각색한 테라야마 수지 감독은 영화, 연극, 문학 등 예술 장르를 넘나들며 독창적인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1월31일 셰익스피어 고전 '베니스의 상인'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마이클 레드포드 감독 작품을 만났다. 마이클 감독은 '베니스의 상인'을 영화화 하면

서 유대인 고리대금업자인 샤일록을 복합적이고 인간적인 캐릭터로 재탄생시켰다. 셰익스피어 시적인 대사들을 최대한 살려냈다는 평가다. 일찍이 마이클 감독은 '일 포스티노'와 '1984' 등 원작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데 정평이 난 영화인으로 통한다.

2월7일 서머셋 모의 '면도날'이 기다리고 있다. 달과 6펜스, 인간의 굴레와 함께 서머셋 모의 3대 장편소설 중 하나로 꼽히는 '면도날'은 인생의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구도의 길을 떠나는 젊은이의 이야기다. 이를 영화로 만든 '면도날의 모서리'는 빌 머레이가 성자를 따라 명상과 배움의 길에 나서는 주인공 '래리'를 연기했다.

2월21일엔 SF 작품을 만나다. '전 세계 과학소설계의 보물'이라는 찬사를

듣는 테드 창이 '네 인생의 이야기'다. 이 작품은 과학이 줄 수 있는 지적 상상력과 소설이 줄 수 있는 철학적 사유를 동시에 담고 있다. 소설 원작을 영화로 옮긴 드니 빌뇌브 '컨택트'는 영화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소설을 군더더기 없는 영상언어로 옮겼다는 평을 받는다.

이외 소설 원작을 영화로 만든 이언 매규언의 '칠드런 액트', 앨리스 워커의 '칼라 퍼플', 히가시노 게이고의 '인어가 만든 집', 버지니아 울프의 '올란도' 등 12개 작품이 준비돼 있다.

'20세기소설영화독본'은 광주극장 뒤편 '영화의 집'에서 격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이어진다. 문의는 조대영(010-4660-5792)으로 하면 된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ACC 예술극장 빅도어 미디어 파사드의 모습.

ACC 제공

ACC, 2월4일까지 미디어 파사드 작품 상영

디지털극 '호두까기...' 등 선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화려한 조명으로 수놓은 동화 속 세상을 선물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내년 2월4일까지 예술극장 빅도어에 미디어 파사드 작품 두 편을 매일 오후 6~12시까지 30분 간격으로 5분간 상영한다.

이번 미디어 파사드 작품은 디지털 인형극 '호두까기 인형극(2분)'과 그림자 애니메이션 'Merry Christmas Everyone(메리 크리스마스 에브리원·1분46초)'이다. ACC는 두 영상에 프로젝션 매핑 기술을 더해 가로 34m, 세로 14m에 이르는 거대 빅도어를 캔버스로 한 미디어 파사드를 완성했다.

특히 이번에 재생되는 미디어 파사드 작품은 ACC에서 올해 진행한 '콘텐츠 발굴-문화예술 전문가 양성 교육'에서 ACC 창·제작센터 전문가들과 함께 장비, 소프트웨어 활용 등 기초부터 현장 활동까지 배운 교육생들의 작품이라 더욱

관심을 모은다.

'호두까기 인형극'은 발레 '호두까기 인형'을 디지털 인형극으로 재해석했다. 'Merry Christmas Everyone'은 ACC의 공연, 전시를 준비하고 선보이기 위해 무대 뒤에서 일하는 많은 전문가들을 크리스마스 요정에 비유했다.

작품 제작에 참여한 박지원씨는 "올해 ACC에서 창작과 기획에 대한 실무를 배우면서 콘텐츠 하나가 완성되기까지 뒤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을 만나고 배웠다"면서 "무대 뒤 전문가들이 애쓰는 크리스마스 요정 같다고 생각하며 이들에게 보내는 감사의 마음을 작품에 담았다"고 전했다.

한편 ACC 예술극장 빅도어는 국내 최대 규모의 블랙박스형 공연장인 극장1과 야외무대를 연결하는 개폐 가능한 문이다. ACC는 연말을 맞아 지난달 'Light Shadow Art(라이트 새도우 아트)'를 주제로 빅도어를 크리스마스 조명과 조형물로 장식했다.

도선인 기자

용 기운 깃든 고흥 '미르마루길' 새해 기운 받으러 갈까요

한국관광공사 여행지 소개

고흥 미르마루길이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용의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여행지 5곳 중 한곳으로 소개됐다.

고흥 미르마루길은 4km에 이르는 해안 산책로다. 미르와 마루는 각각 용과 하늘을 뜻하는 순 우리말이다. 길이 시작되는 용암마를 영남옹바위에서 용이 승천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두 마리 용이 먼저 승천해 여의주를 얻으려고 싸움을 벌였다. 마을 주민 류시인은 꿈에서 그들의 싸움을 끝낼 비책을 듣고 한 마리를 활로 쏘았다. 류시인의 도움으로 싸움에서 이긴 용이 용암마를 앞 바위를 디딘 채 승천했는데, 그 흔적이 지금까지 있다는 것.



고흥 미르마루길.

한국관광공사 제공

고흥군은 영남옹바위와 고흥우주발사전망대 사이에 해안 탐방로 '미르마루길'을 조성했다. 미르는 용을 뜻하는 옛말이다. 길이 4km 미르마루길은 주변 기암절

벽과 몽돌해변, 탁 트인 바다를 두루 감상하며 거닐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설과 관련된 용굴, 사자바위 등도 만날 수 있다.

미르마루길 끝에 고흥우주발사전망대가 있다.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하는 로켓의 궤적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이다. 팔영산은 고흥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들 만큼 경치가 빼어나다. 산 중턱에 자리한 팔영산편백치유의 숲은 자연에서 휴식을 즐기기에 좋다.

한편 한국관광공사가 뽑은 용의 기운을 듬뿍 받으며 새해 소망을 빌 수 있는 1월 여행지는 △강원 삼척 수로부인현화공원과 해가사터 △충남 홍성 용봉산 △경북 예천 화룡포 △부산 기장 해동용궁사 △고흥 미르마루길 등 5곳이다.

도선인 기자

광주시립교향악단, 내달 16·17일 '페스티벌' 공연

광주시립교향악단은 새해를 맞아 1월 16~17일 오후 7시30분에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에서 신년 음악회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제380회 정기연주회인 이번 무대에는 교향악, 오페라, 발레 모든 영역에서 인정받아 '젊은 명장'이라 평가받는 예술감독 홍석원이 지휘하고 파리국립오페라 클라리넷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클라리네티스트 김한이 출연한다.

공연은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로 포문을 연다. 2부는 '바그너 뉘른

베르크의 명가수 중 1막 전주곡'을 연주한다. 이어 슈트라우스 장미의 기사 모음곡으로 신년음악회를 장식한다.

협연자 클라리네티스트 김한은 관악자로서 재능을 인정받았다. 예원학교를 거쳐 영국의 명문 이튼 칼리지와 길드홀 음악연극학교를 장학생으로 졸업하고 2016년 자크 랑솔로 국제 콩쿠르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 1등상과 청중상, 위촉곡 최고해석상, 2019년 ARD 국제 콩쿠르 2위를 수상했다. 핀란드 방송 교향악단 부

수석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파리 국립 오페라 클라리넷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다.

예술감독 홍석원을 필두로 한 광주시립교향악단은 정통 레퍼토리와 도전적인 작품을 선정, 수준높은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와 티켓팅 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입장권은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이다. 7세부터 관람 가능하다. 광주시립교향악단(062-613-8241)으로 문의.

도선인 기자